

정보와 교양 두루 갖춘 품격 높은 여행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인문교양 겸비

‘정보’와 ‘교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 최근 출간된 여행 관련서들이 지닌 특징이다. 달리 표현하면, 여행기와 여행안내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여행기는 정보 전달에 인색치 않은 까닭에 여행 길잡이로서도 손색이 없으며, 품격을 갖춘 여행안내서는 독자적인 읽을거리로도 그만이다.

여행기가 안내서의 기능을 하는 실천문학사의 기행 시리즈는 일종의 테마 북이다. 하지만, 실천문학사의 테마기행은 ‘재’, ‘술’ 따위의 대상을 좇은 삼사 년 전의 유행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1980년대의 대표적인 기행문인 《국토와 민중》과 《민요기행》(한길사)에 더 가깝다. 인문지리지의 요소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80년대 방식으로 독자 앞에 나설 수는 없는 일.

백두대간과 금강산

지난해 나온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는 지금의 거의 자취를 감춘 원시형태의 집과 그 속에 간직된 애절한 전설을 담아내는 한편, 3백여장의 사진을 통해 현지인의 삶과 역사의 흔적을 생생하게 전달해 독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도에 표시된 오지마을의 위치가 독자들의 구미를 한껏 당기게 했음은 물론이다. 허나, ‘오지’는 큰 맘 먹고 나서야 하는 곳이라 대부분의 독자는 입맛만 다셔야 했다. 지난 봄에 출간된 《마음도 쉬어가는 고개를 찾아서》는 그런 아쉬움을 어느 정도 풀어준다. ‘고개기행’은 ‘진부령’에서 ‘여원재’에 이르는 백두대간에 걸린 열다섯 고개 굽이마다 얽힌 사연을 담고 있다.

《산천을 담은 사람들》(효형출판) 역시 백두대간 기행문이다. 97년 한해 동안 네곳의 지방신문에 연재된 ‘백두대간 기획시리즈’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화가와 문인이 짝을 이뤄 백두대간의 한 지점에서 산세를 답사해 그림과 글로 옮긴 점이 이채롭다. 예컨대 ‘진부·설악권’은 신경림 시인과 임옥상 화백이, ‘태백산’은 고희렬 시인과 황재형 화백이, ‘백두산’은 고은 시인과 김정현 화백이 콤비를 이뤄 절묘한 화음을 연출했다. 신경림 시인은 평화의 땀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산과 물의 아름다움을 크게 헤친 것마저 아름다움 속에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땅의 힘은 놀랍다”고 토로한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백두산은 에둘러가야만 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길이 열릴 줄도 몰랐다. 하지만, 여전히 금강산을 포함한 북한 지역으로의 여행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미리 다녀온 여행자의 눈과 귀에 기대야 하는 형편이다. 신간 《산하여 나의 산하여》(중앙M&B)는 시인 고은씨의 북한 순례기로 지난해 여름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례적인 장기여행 허가를 얻어 둘러본 북녘의 산천을 손에 잡힐 듯 그려놓았다.

역시 신간인 이태호 교수의 《조선미술사 기행》(다른세상) 첫째권은 분단 이후 남한 미술인에 의해 처음으로 씌어진 금강산 답사기. 금강산 관광코스에서 빠진 지역의 문화유적까지 두루 살폈다. 한편, 금강산 일대를 다룬 유흥준 교수의 《나의 북한문화유산 답사기》 둘째권은 가을께나 선보일 것 같다. 아무튼, 북한 답사기들은 언제든 여행안내서로 변신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교보문고 여행 부문 베스트셀러 수위에 올라 있는 《이 땅에 이런 데도 있었네》(조선일보사)는 전형적인 여행안내서다. 계절별로 가볼 만한 이색명소와 숨은 비경지를 소개하는 것은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기획이나, 레저 전문기자의 글발과 시원한 편집이 이를 넘어선다. 저자는 피서지로 구례 수락폭포, 영광 갯벌, 거제 외도, 제주도, 제주 우도 등을 추천한다. 아울러 동강을 품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동강과 살아 있는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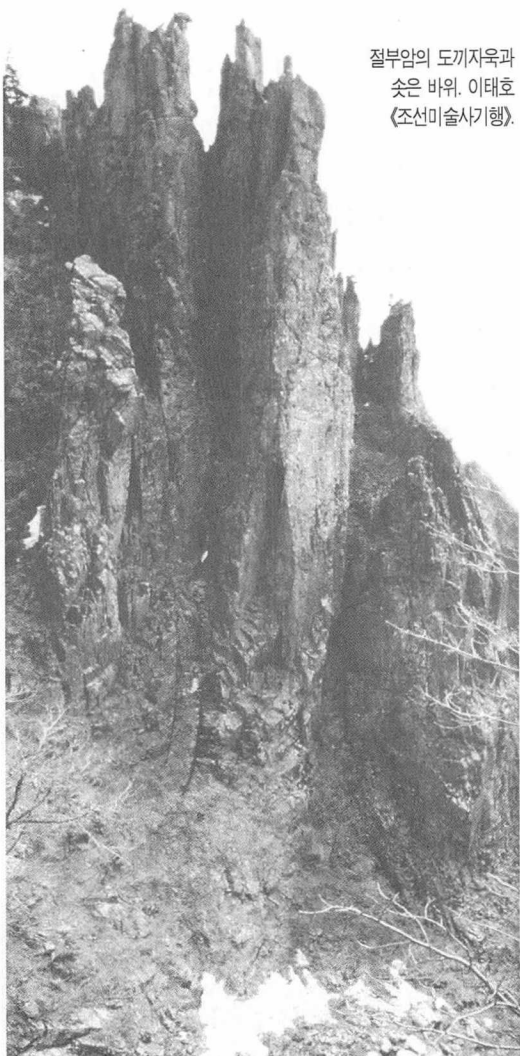
영월댐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동강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동강을 다룬 책이 여러권 나왔고, 이 중에는 여행안내서도 있다. 그런데 동강 지역을 소개하는 책들은 어느 지역을 알리는 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영월댐 건설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도외시킬 수 없는 탓인지 비장함마저 풍긴다.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다른세상)는 영월댐 반대를 대놓고 주장한다. 그래도 강한 메시지에 비해 책의 편제는 의외로 유연한 편. 동강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댐건설 반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동시에 동강을 찾는 이들을 위한 알찬 가이드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트레킹, 산악자전거, 레프팅 같은 레저활동을 즐기기에 적합한 장소와 어라연, 백룡동굴 등의 볼거리를 친절하게 일러준다. 또, 이런 내용의 갈피에 시와 산문을 배치해 동강 일원을 그대로 보존하지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비하면, 시인 진용선씨의 《동강아리랑》(수문출판사)은 좀더 객관적인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저자가 97년 국립민속박물관 영월댐 수몰지 유적조사보고서를 쓰면서 정리한 내용을 크게 손질한 이 책은 동강을 개관하는 것으로 시작해 지명 유래, 설화와 민요, 의·식생활, 민속놀이, 선사유적지 등을 다뤘다. 특별부록으로 ‘원색 동강안내지도’를 준다.

여행서의 경계 허물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천문학사 이순화 편집장은 “기존의 여행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에 치우쳐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계기를 부여해주는 인문교양을 겸비한 여행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성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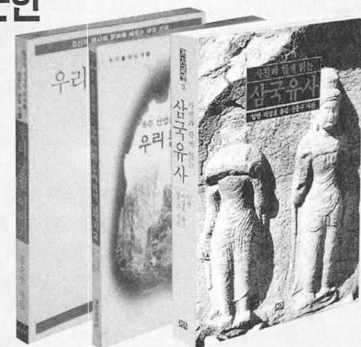
절부암의 도끼자욱과
솟은 바위. 이태호
《조선미술사기행》.



여행의 동반자로 삼기에 충분한 무겁고 진지한 책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까치)는 이른바 ‘북한 원전’이다. 1960년 북한과학원 고전연구실 소속의 리상호가 옮긴 삼국유사(이하 ‘유사’) 국역본이다. 꽤나 두툼한 이 책을 여행의 동반자로 추천하는 건 사진 때문이다. ‘유사’의 현장을 1백여장의 사진에 담아 ‘유사’ 유적답사기의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어서다. 더구나 사진은 사진작가 강운구씨의 작품이다. 특히, 경주 일대를 찾을 때 유용할 듯.

건축가 홍순민씨의 《우리궁궐이야기》(청년사)는 서울의 옛 궁궐을 돌아볼 때 지참해야 할 필수품. 저자는 비단 건축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의 궁궐에



주목해 궁궐의 변천상을 짚고 있다. 묵수 신영훈씨의 《우리문화 우리역사답사기2》(대한교과서)는 집 짓는 이의 눈으로 본 우리 전통문화의 진면목. ‘책판의 고장, 산청’과 ‘가야산 해인사의 목판본’을 통해서 우리 출판문화의 빼어난 전통을 되짚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최성일>